

[참고]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제2차 결과 세부자료

코로나19 장기화, “여성, 30대·50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타격” 일자리 상실·일상회복 정도·우울 및 걱정·자가격리 시 문제 수준 등 6개 지표 반영 결과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차 공동 조사

-1차 조사보다 감염 가능성·심각성 인식 모두 낮아져...‘판매·영업·서비스직’ 위험 인식 ‘최고’
-코로나19 위험 ‘통제 가능하다’ 59.0%지만 ‘한국 안전치 않다’ 45.7%...코로나19 상황 인식 격차
-코로나 걱정 사안, ‘타인 감염시키는 것’>‘감염이 내게 미칠 영향’ 외국 결과와 유사하나 ‘격리 가능성’, ‘소득 감소’ 등 사안별 걱정 수준 외국보다 높아
-자가격리 시 문제 ‘내 역할 대체자 없다’ 58.5%, ‘생계 대안 부재’ 47.5%...50대·4인 이상 가정·저소득층·연립주택 거주자일수록 문제 인식 점수 높아
-코로나19로 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82.8%...일상회복(100점) 51.8점 절반 수준, 저소득층·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사람일수록 일상회복 저조
-7월 기준 마스크 “항상” 착용률 88.4%, 외국 설문 조사 결과의 4배 이상 높아
-‘아프면 3~4일 쉰다’, ‘주기적 환경 소독’ 실천율 증가 고무적
-“항상” 2m 거리두기 실천은 25.5% 불과...생산·기능·사무직 실천율 낮아 대책 필요
-마스크 안 쓴 사람에 “불안”>“분노”>“혐오” 느껴...“항상” 쓰는 이가 분노·혐오 더 많이 경험
-마스크 안 쓰고 만난 사람 평균 3.8명에서 4.2명으로 증가...남성·20대·사무직의 경우 더 많아
-위기대응 역할 중요도 대비 기여도 차이, 방역 당국·나와 가족·전문가 순으로 작고 언론·일반 국민 가장 크게 나타나...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기여에 대한 신뢰 확보 노력 시급
-당국 코로나19 정보제공·소통 신속성 만족도 최고, “사망자·유족 애도(사회적 연대)”,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 제공” 만족도 최저
-혐오 표현 경험 감소(49.5%→28.9%)...혐오 대상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자’가 처음으로 ‘신천지’ 증가
-안전 안내 문자 “받고 안 본다” 10.5%→ 14.7%, 이유 “너무 많이 와”>“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방역당국 브리핑 신뢰(72.8%) 계속 높지만 “주의 기울임”(56.0%), “유익”(63.7%) 인식 감소
-서울대·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차 공동조사도 기획 중...“이웃과 주변의 역할과 기여 신뢰 높이고 공동체 방역의 성과 체감할 ‘연대형 방역’ 절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집단과 자가격리 문제 인식 큰 집단 선택과 집중 관리 필요”

□ 최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이희영)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실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총 3회로 기획된 지속 조사 1차는 지난 5월 18~26일,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번 2차 조사는 연구진이 전문조사업체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7월 17~24일에 걸쳐 이뤄졌다. 자료는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수집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p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 집단

○ 이번 조사에 포함된 6개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과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그리고 30대와 50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과 삶의 부정적 영향권’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기준 문항 (점수 기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
정신건강(우울)	GHQ-9 관련 9개 문항 총 평균 점수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	여성, 30대, 자영업/판매·영업·서비스직, 월소득 200만원 미만
자가격리 시 문제 사안	9개 사안 모두 문제라고 응답한 집단 내 분포	50대, 기타직/판매·영업·서비스직
일상회복	일상회복 문항 평균 점수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	여성, 30대, 무직·퇴직·은퇴/주부, 월소득 200만원 미만
코로나19 걱정	코로나19 걱정 관련 10개 문항 총 평균 점수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	여성, 자영업/판매·영업·서비스직
일자리/임금	“일자리 잃었다”라고 응답한 집단 내 분포	여성, 50대, 월소득 200만원 미만
코로나19가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문항 평균 점수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	여성, 주부, 30대, 월소득 200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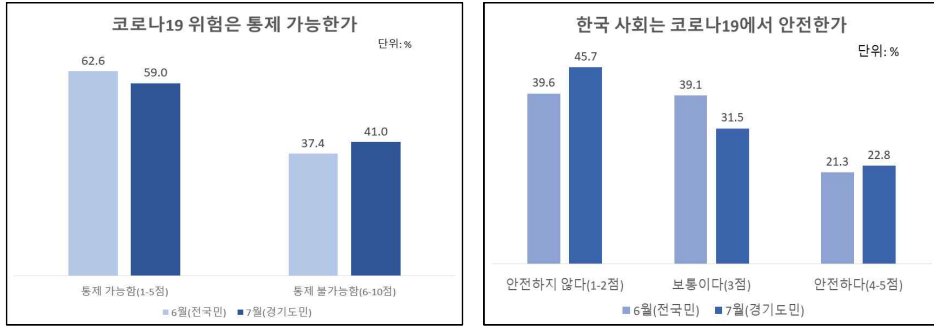
-예컨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우울의 평균 점수가 높고, 일상회복이 더딘 수준이며 코로나19로 걱정 사안이 많고 그 점수가 높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코로나19가 삶의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이른 지표에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월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모든 사안이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전체의 6% 해당) 중 19.7%를 차지하여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생계 및 예비금 부족’에 대해 월소득 700만원 이상 그룹에서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이었던 반면, 200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51.1%로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0001)

코로나19 ‘상황’ 인식 (통제 가능성 vs. 사회적 안전)

○ 코로나19 상황 인식은 ‘위험의 통제 가능성’과 ‘감염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 두 측면에서 살펴봤다. 분석 결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 한국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절반 수준으로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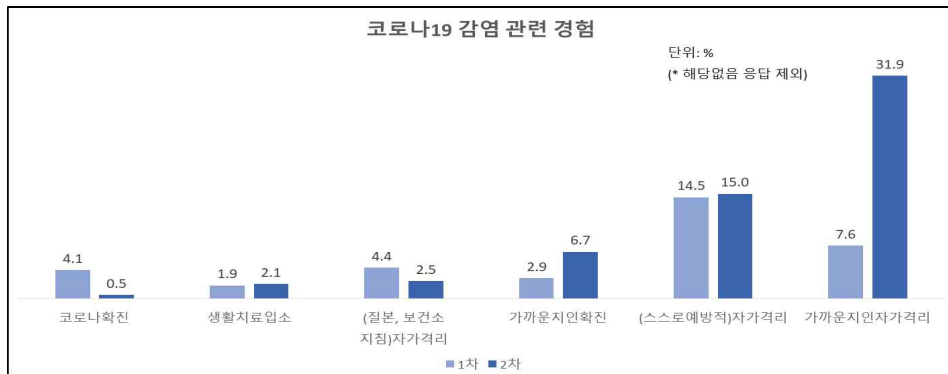
-위험의 통제 가능성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을 ‘전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보면 1점, ‘전적으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10점을 주도록 했을 때, 평균은 5.0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1~5점)를 택한 경우는 59.0%였고, 통제 불가능하다(6~10점)고 택한 경

우는 41.0%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높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가’의 질문은 5점 척도였고, (매우+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45.7%, (매우+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했다. 감염을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보지만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이런 결과는 지난 6월 전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 교수팀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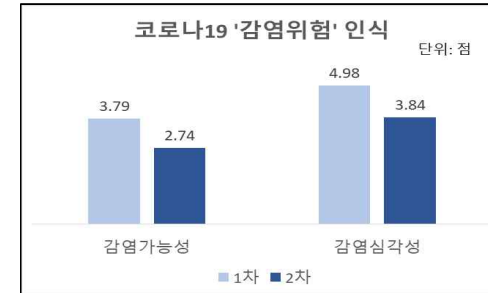
○ 유 교수는 “감염병 사태 6개월을 넘긴 현재, 감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은 권고 행위 실천 등 지난 경험이 반영된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가 안전하다고 믿고 생활하려면 내가 당국의 지침을 지키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믿음에서 나아가 주변 사람과 집단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기반의 대응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중복응답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관련 경험’ 현황을 알아본 결과 ‘해당 없음’을 제외하면(1차: 77.9%, 2차: 87.4%), 1차에 비해 ‘가까운 지인의 확진’이나 ‘가까운 지인의 접촉자 분류에 따른 자가격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지인의 자가격리는 1차 7.6%에서 2차 31.9%로, 가까운 지인의 확진 또한 2.9%에서 6.7%로 상승했다. 점차 내 주변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의 영향권 안에 속하게 되는 상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식

○ 지난 5월의 1차 조사에 비해 7월 조사 (2차)에서는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감염 가능성 인식과 감염의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는 감염 심각성 인식 모두 낮아졌다 (감염가능성 평균 3.79점→2.74점, 감염 심각성 평균 4.98점→3.8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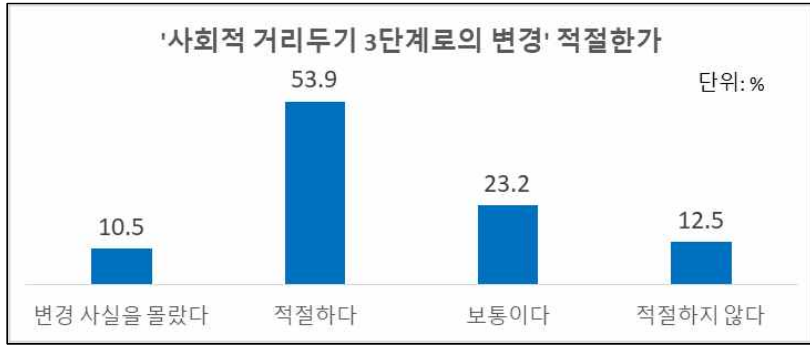


-인구사회적 변수 중에서 직종, 구체적으로는 ‘판매·영업·서비스 직종’의 위험 인식 점수가 높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 직종은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2.87점)과 감염되면 그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3.97점) 모두 나머지 직종보다 점수가 높았다. (분율로는 감염 가능성 높다 12.2%, 감염 심각성 높다 78.7%). 연령에서는 30대의 감염 가능성 인식이 가장 높고, 감염 심각성 인식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 유 교수는 “응답자의 거주지인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이 큰 문제였던 1차에 비해 감염 현황이 안정을 찾은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높은 위험을 인지한 채로 택배, 판매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계에 임할 수 있도록, 각자 알아서 하고 문제가 되면 처벌한다는 식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의 위험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집단을 선택, 집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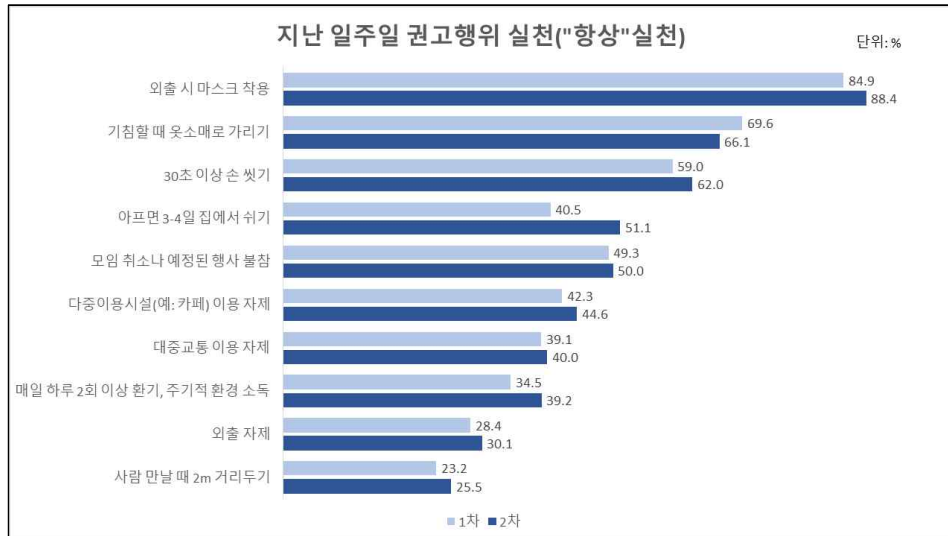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최근 방역 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적절함에 대해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1)~‘매우 적절하다(5)’의 5점으로 답할 수 있도록 했고, ‘변경 사실을 몰랐다(6)’를 추가했다. 몰랐다는 응답 제외 후 재분석한 결과, 거리두기의 단계별 분류가 적절한 변화였다는 응답이 53.9%였고, 보통이다(23.2%)가 다음이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12.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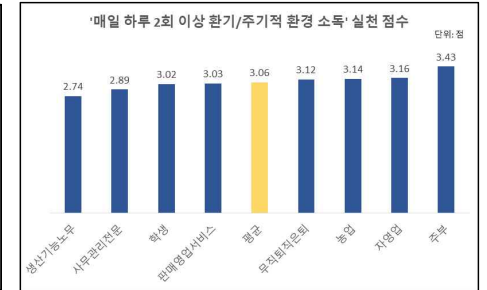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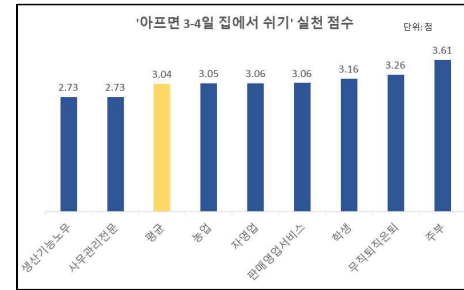
○ 전 국민 1차~6차 조사 및 경기도민 1차 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통해 방역 당국의 권고행위 실천도를 조사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실천을 질문하고 (전혀, 가끔, 자주, 항상) 중 “항상” 실천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의 항상 실천이 88.4%로 가장 높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가 66.1%, ‘30초 이상 손 씻기’가 62.0% 순으로, 상위 3순위를 차지했다. 모두가 개인 예방 행위 실천이다.

- 반면 ‘사람 만날 때 2m 거리두기’를 “항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 ‘외출 자제’를 “항상” 실천한 비율은 30.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프면 3~4일 쉬는 권고 행동 실천으로 1차 때의 40.5%에 비해 2차에서는 51.1%로 10.1%p가 상승한 것이다. 그보다는 변화도가 작지만, 최근 추가된 권고 행위인 주기적인 환경 소독의 실천도 역시 1차보다 상승했다(1차 34.5% 2차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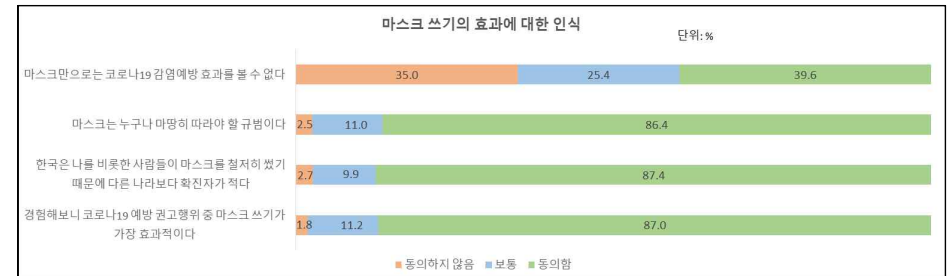


- 그러나 권고 행위 실천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사무·관

리·전문직 종사자와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의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의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았다. ‘매일 하루 2회 이상 환기, 주기적 환경 소독’ 역시 이 두 직종에서는 각각 2.89점, 2.74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크 쓰기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다”에 8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스크 쓰기가 가장 효과적”, “마스크는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라는 인식에도 많은 경기도민이 동의하고 있었다. “마스크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내용에는 39.6%는 동의하였으나, 35.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인식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 이희영 단장은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아프면 3~4일 쉬기’ 같은 핵심 수칙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과 같이 취약노동자들이 개개인의 삶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유 교수 역시 “140여 개 나라 2만 명 이상이 응답한 조사 결과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은 22% 수준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의 수준과 네 배 정도의 큰 차이이다”라며 “이처럼 국내에서 마스크 쓰기가 일종의 규범이 된 만큼, 이제는 개인 수칙을 반복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실천이 부족한 행위에 집중하고 실천의 영향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증거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맞춤형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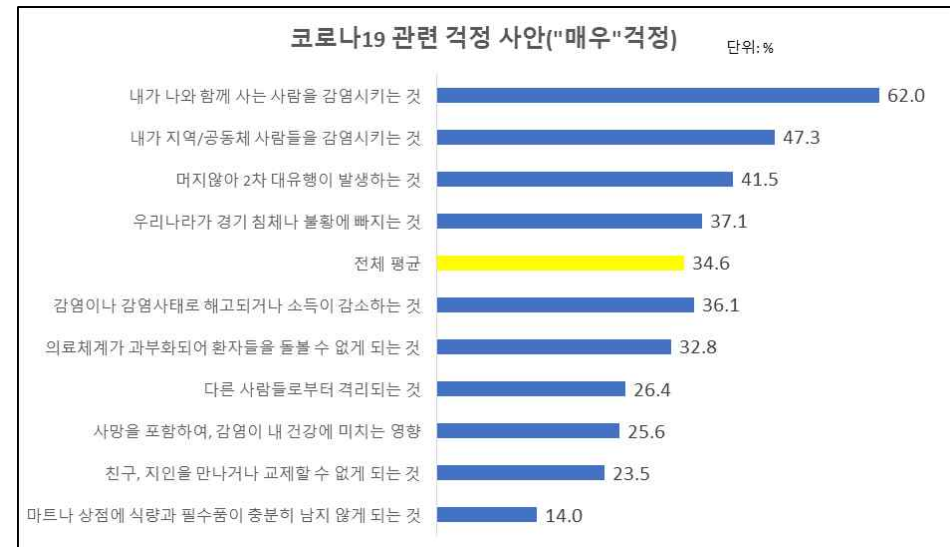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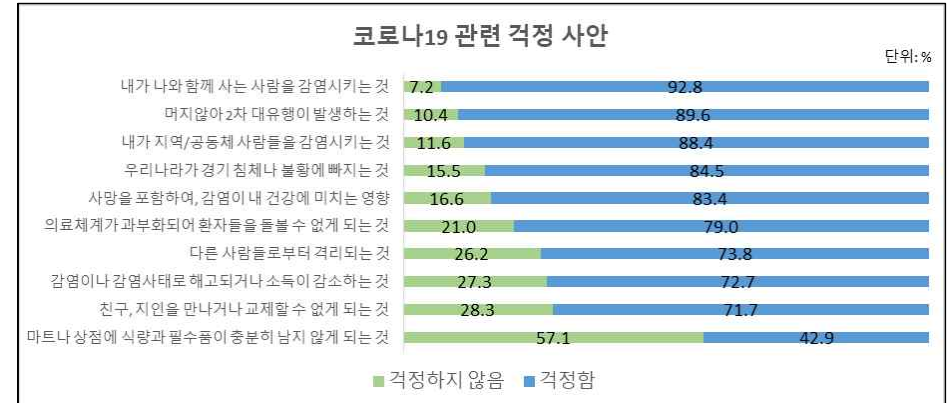
코로나19 걱정 사안 유형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의 감염사태 역시 반년을 넘긴 지금, 일반인의 주요 걱정 사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Montreal Behavioral Medicine Center (MCMB) 가 iCARE 이름으로 진행 중인 설문 문항을 활용, 모두 9개의 항목을 질문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음(1)'~'매우 걱정함(4)'의 4점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답변을 '걱정하지 않음(1점+2점)'과 '걱정함(3점+4점)'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 3위 걱정 항목은 '내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92.8%)>'머지않아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것'(89.6%)>'내가 지역/공동체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88.4%)이었다. 9개 항목 중 최하위는 '마트나 상점에 식량과 필수품이 충분히 남지 않게 되는 것'(42.9%)이다. 전체적으로는 가족과 이웃 등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infecting others)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내가 감염되어 받을 건강, 재정, 고용 영향 (impacts from being infected)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iCARE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약 58%가 격리되는 것을, 41%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해고를 '매우' 또는 '다소' 걱정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각각 73.8%, 72.7%로 나타나 더 높은 걱정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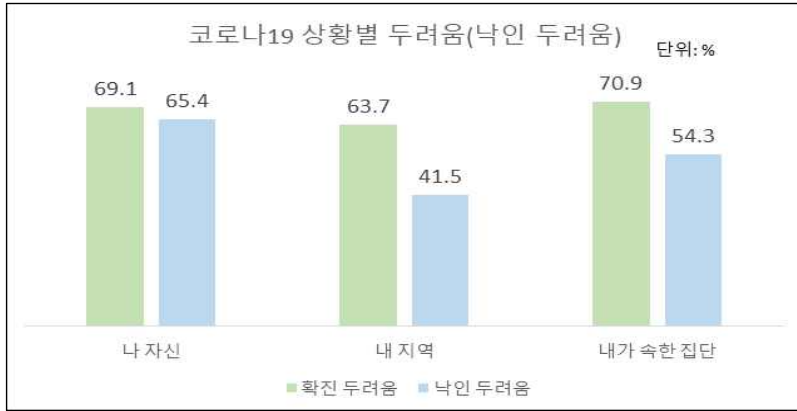
○ 유 교수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이 다르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취한 행정 조치 역시 다양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외국처럼 한국의 구성원들 역시 감염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보다 내 감염으로 타인에게 미칠 영향 즉 감염의 사회적 함의 (social implication)를 더 크게 걱정한다."라며, "타인을 감염시킬 것에 대한 높은 우려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침 준수를 지속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참여 경험을 반영하고, 이런 해석은 외국도 유사하다. 다만, 대체로 각 사안에 대한 걱정 수준이 우리가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지나친 부담감과 우려감을 줄이도록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껏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걱정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자신감(효능감)을 관리하며 상호신뢰를 확보하면서 긴 호흡으로 헤쳐나가자고 말할 것인가의 고민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별 두려움(낙인 두려움)

○ 확진 두려움과 확진에 대한 낙인 두려움을 나누고, 나 자신, 내 지역, 내가 속한(직장, 종교, 여가 등) 집단으로 나누는 뒤 총 6가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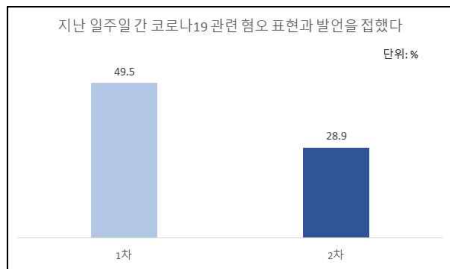
-확진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확진자가 나올까 봐 두려움'는 답변이 70.9%, '내가 확진될까 두려움' 69.1%로 서로 유사한 수준인데 비해 낙인 두려움은 '내가 낙인 될까 봐 두려움'는 응답이 65.4%로 '내 소속 집단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54.3%에 비하여 11.1%p 차이를 보였다.



○ 유 교수는 “확진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나와 내가 소속된 집단 간에 차이가 없으나 낙인 두려움은 나를 준거로 할 때 더 크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또한, 여전히 응답자 절반 이상이 확진으로 인해 받을 비난과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함의도 작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개개인에게 방역 사령관이 되라고 책임을 강조했고, 경기도민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뒷받침되지만, 확진을 무책임함으로 바라보는 경향성도 드러났다. 이런 것이 불려오는 두려움이 높은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대로 좋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예방 행위의 집단효과(외부효과)와 거기서 개인이 나눌 이득(gain)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접근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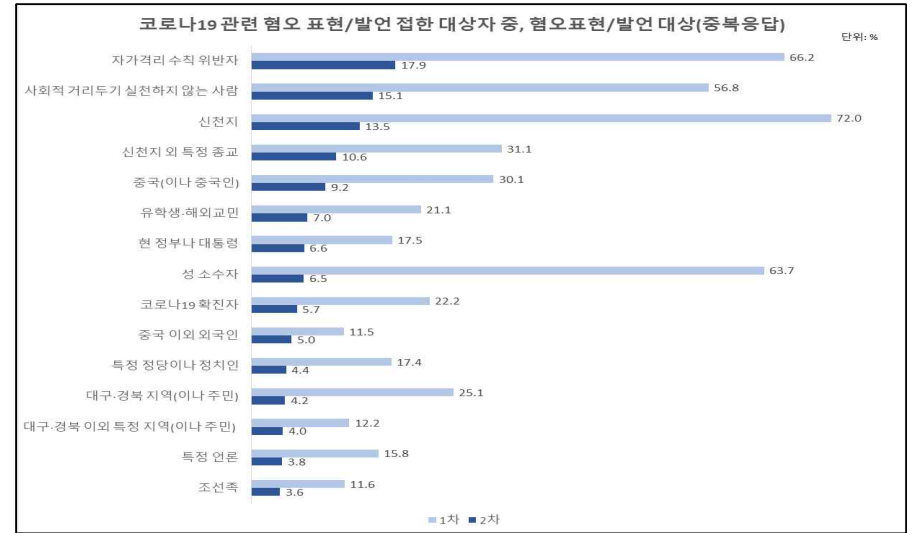
혐오·차별 표현

○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이나 발언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28.9%였다. 이는 1차 조사(49.5%)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중복응답으로 “혐오 표현과 발언의 대상”을 조사한 결과, 1차 조사 때에는 신천지, 자가격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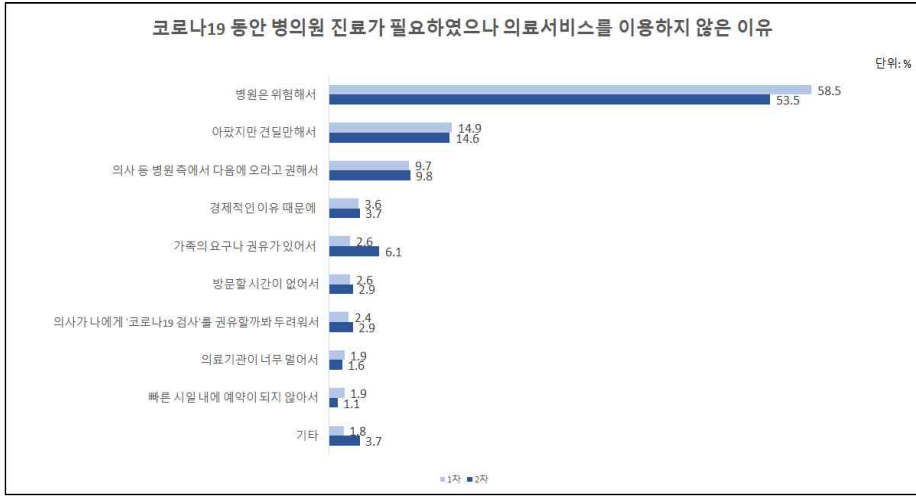
칙 위반자, 성소수자 등이 상위 순위였으나 2차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신천지를 앞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 유 교수는 이에 대해 “혐오 표현과 발언을 접한 경우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인 신천지 등 비교적 외집단 구분이 용이했던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달리 나의 이웃과 동료 등 주변 사람이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잘 하지 않을 때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며, “일상을 유지하며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과제인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거리두기 노력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공존의 문화(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도록 당국, 언론, 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미충족 의료수요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두달 간 본인이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않은/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전체의 14.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지난 1차 조사(16.3%)에 비해서는 미충족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뒤이어 그 이유를 질문했을 때 전체의 53.5%는 병원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대답, 경제적인 이유(3.7%)나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2.9%) 등의 물리적인 이유를 크게 앞질렀다. 두 번째로 꼽힌 이유는 아프지만 견딜만해서(14.6%)로 나타났고, 필요한 치료나 진단이 의사나 병원(9.8%) 또는 가족(6.1%)등 주변의 권유로 방문을 지연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15%를 넘었다. 이는 지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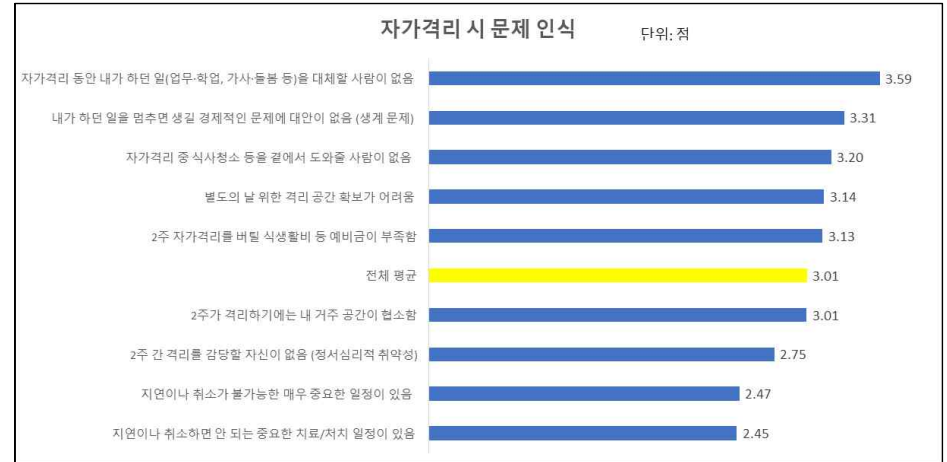


○ 이에 대해 이희영 단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충족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않은/못한 경험이 14.9%로 높은 상황이다.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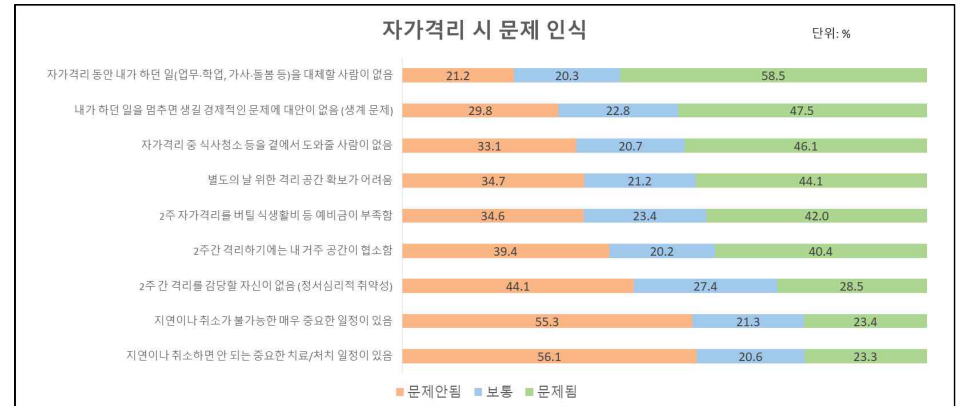
자가격리 시 문제 인식

○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무엇 인지를 탐색했다. 역학, 공공의료, 지역사회 대응, 위기소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동 연구진이 총 9개 문항을 개발했고 5점 척도로(전혀 문제안됨(1점)~매우 문제됨(5점)) 질문했다. 답변은 문제안됨(1~2점)과 보통(3점), 문제됨(4~5점)으로 재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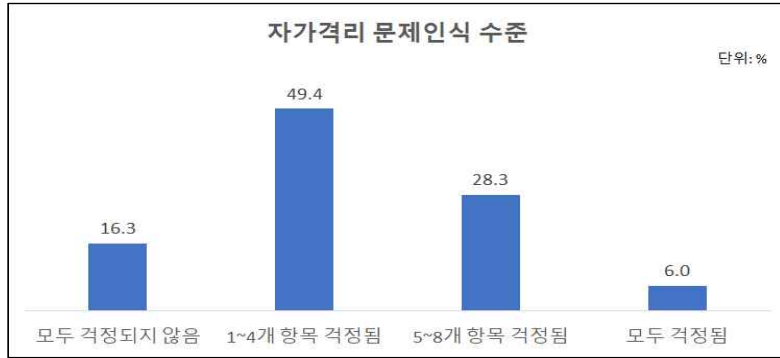
○ 전체 평균은 3.01로, 점수 1순위는 ‘자가격리 동안 내가 하던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3.59점)이고 다음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 생길 경제적인 문제에 대안이 없다’(3.31점)는 문제>‘자가격리 중 식사·청소 등을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3.20점)는 문제>별도의 독립된 격리 공간이 없는 문제(3.14점)>2주간 버틸 생활비 등 예비금 부족 문제(3.13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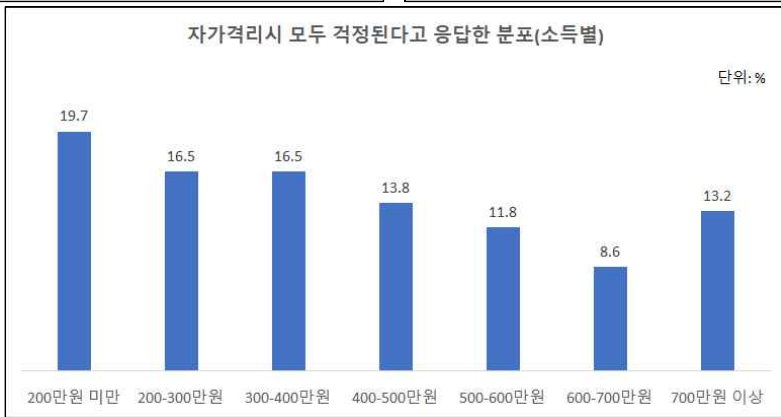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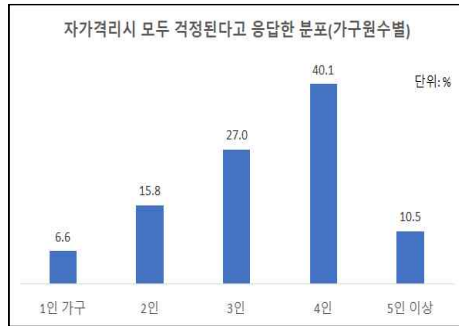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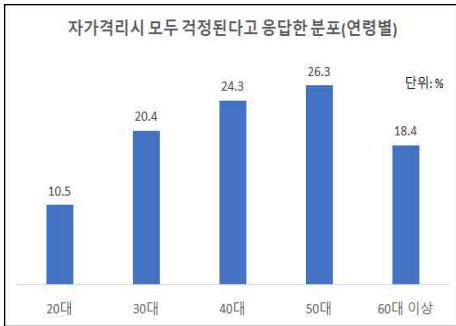
○ 비율로 보면, 자가격리 동안 ‘내가 하던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 생길 경제적인 문제에 대안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경제적, 물리(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9개 문항 모두에 대하여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모두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3%이었고, 9개 문항 ‘모두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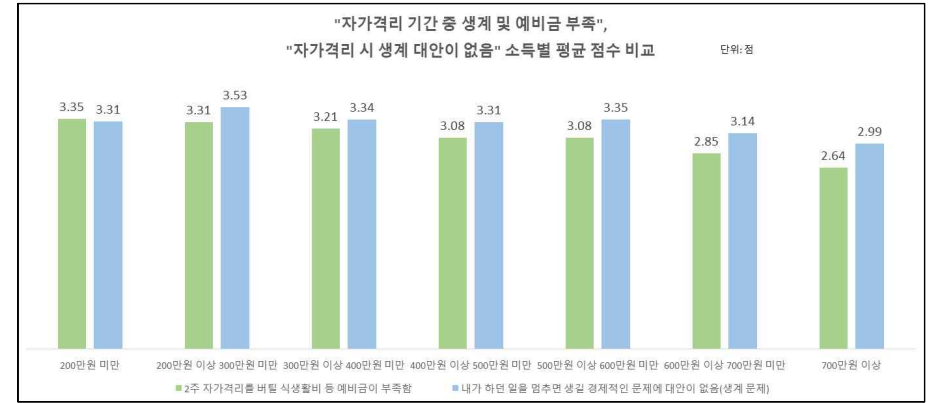


-9가지 문항 ‘모두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50대 (26.3%), 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19.7%), 4인 가정(40.1%)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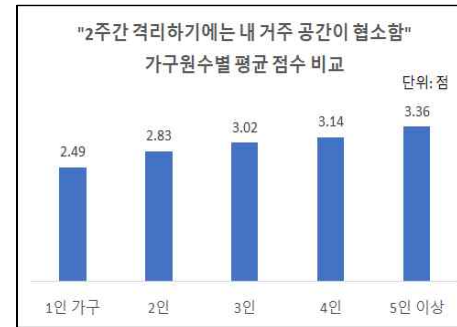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생계 및 예비금 부족’에 대해 소득수준별 격차가 컸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이 문항의 평균은 2.64점인데, 200만원 미만에서는 3.35점이었다. 유사하게, 자가격리

시 생계 대안이 없다는 문제는 700만원 이상 그룹에서 2.99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그룹에서 3.53점으로 상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2주간 격리하기에는 내 거주 공간이 협소함’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문제 인지에 차이가 있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격리하기에 거주공간 협소’의 어려움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2.98점)보다 연립다세대주택(3.10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격리하기에 거주공간 협소’ 어려움이 높게 인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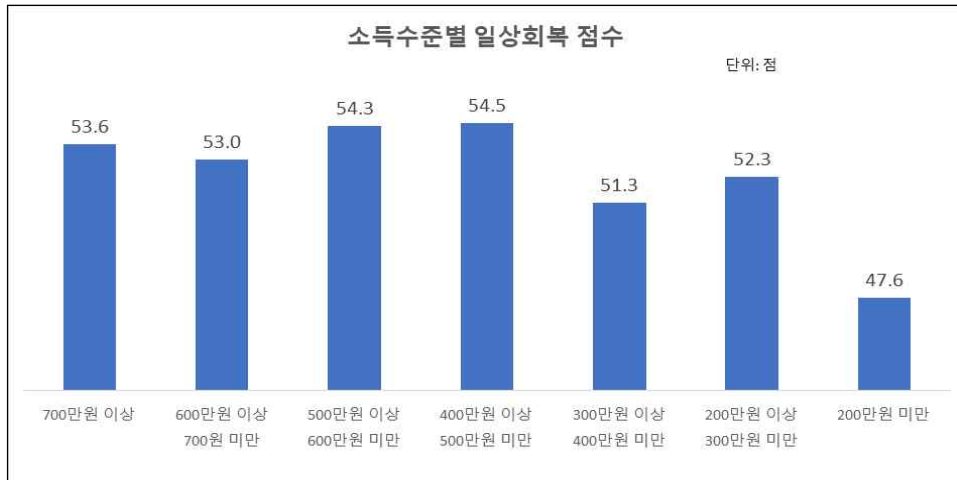
○ 연구진은 “감염병 대응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각자의 사회적 조건들에 따라 누군가의 자가격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고, 이를 개인의 의지만으로 돌릴 수 없다. 이런 결과들을 활용, 앞으로는 지침과 물품의 일괄 배포에서 나아가 집단별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맞춤형 위기대응을 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삶의 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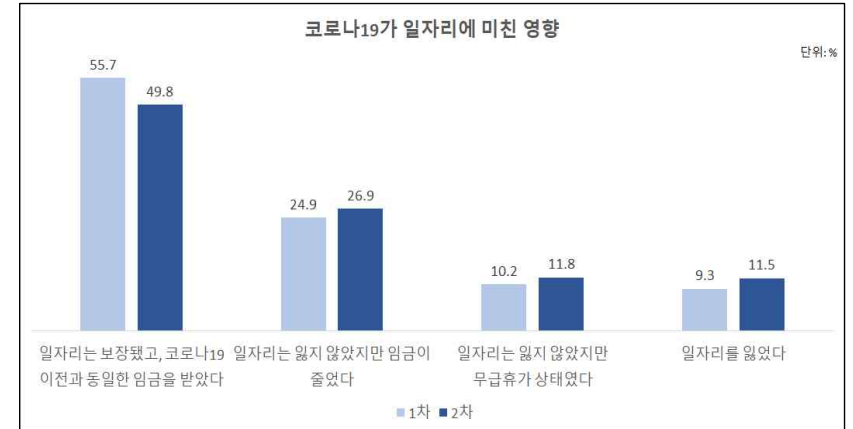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태는 귀하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 영향’(1점), ‘전적으로 악영향’(10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결과, 평균은 7.14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쪽이었다. 분율로 보면 긍정적 영향(1~5점)은 17.2%에 불과하고, 부정적 영향(6점~10점)은 82.8%로 높다.

-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남성 7.04점>여성 7.24점), 타연령대보다 30대(30대 7.50점>20대 7.40점>40대 7.18점>50대 6.91점>60대 이상 6.73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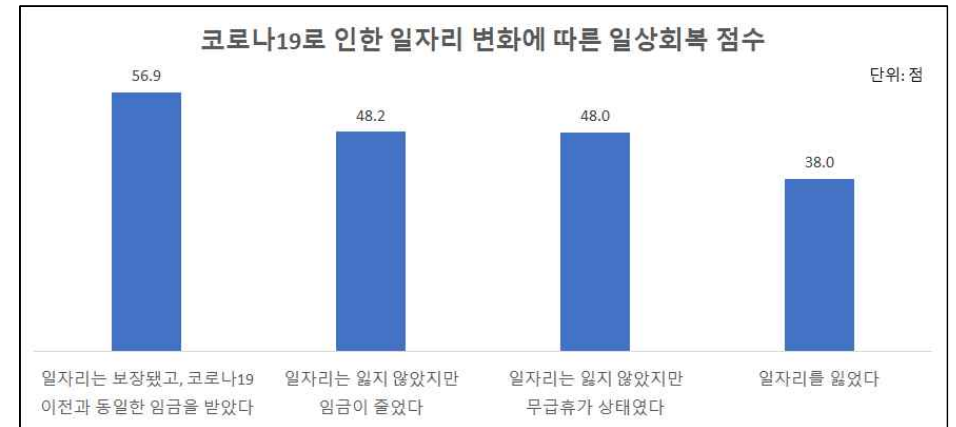
○ ‘귀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다?’에 대해 묻고 회복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으면 100점, 전혀 일상회복을 하지 못했으면 0점), 평균 51.8점으로 대략 절반쯤의 일상회복 수준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상회복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200만원 미만 집단의 회복 점수는 47.6점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53.6점보다 크게 낮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파악하였다. 답변 중 해당 없음과 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9.8%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았고,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거나(26.9%), 무급휴가 상태(11.8%)가 다음을 차지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는 전체의 11.5%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악화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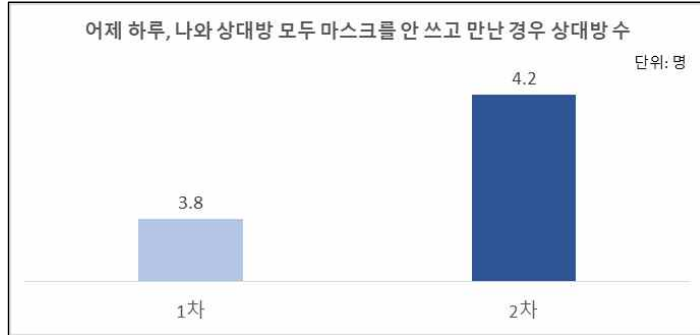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따른 일상회복 점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상회복 점수는 38.0점으로, ‘일 자리는 보장됐고,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일상회복 점수가 56.9점과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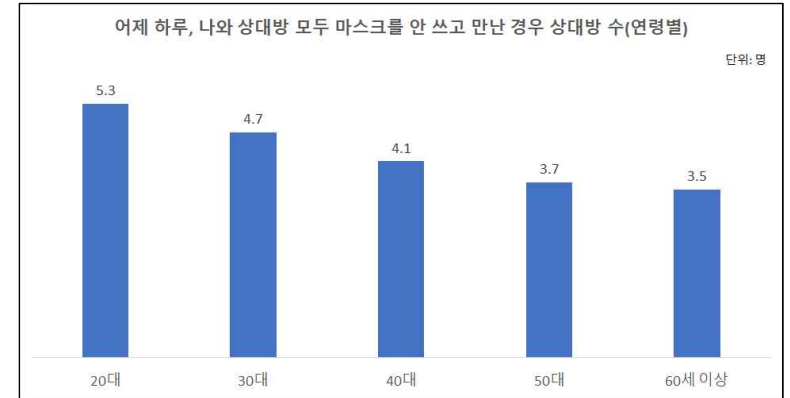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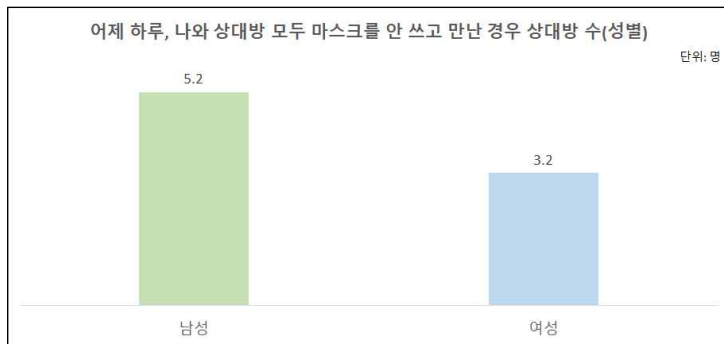
○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역사상 6번째지만,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했듯이, 이처럼 장시간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경우는 코로나19가 최초일 것이고,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는 그 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라며, “이는 곧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의 고용과 일 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하듯 고용과 일상회복 등 사회적 삶을 위협에서 막고 치료할 사회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미착용 노출 수준, 마스크 스트레스

○ 집(가정)을 빼고, 어제 하루 귀하와 상대방 모두가 “마스크 없이 만난 경우” 귀하의 상대는 몇 명인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 4.2명으로 1차의 3.8명보다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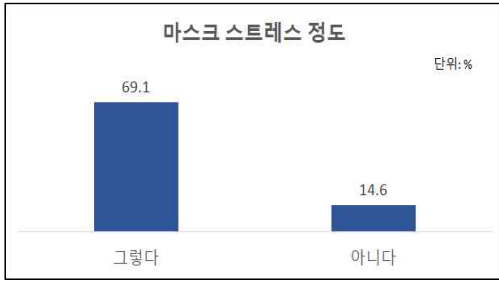


-마스크 미착용 상황에서의 접촉은 성별로 차이가 컸다. (남성 평균 5.2명>여성 평균 3.2명) 연령대에서는 20대 5.3명>60세 이상은 3.5명이었다. 직종에서는 판매·영업·서비스, 자영업, 무직·퇴직·은퇴자, 주부, 기타 직종은 평균인 4.2명보다 적게 접촉한 반면, 생산·기능·노무와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는 하루 기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하는 경우가 평균 4.2명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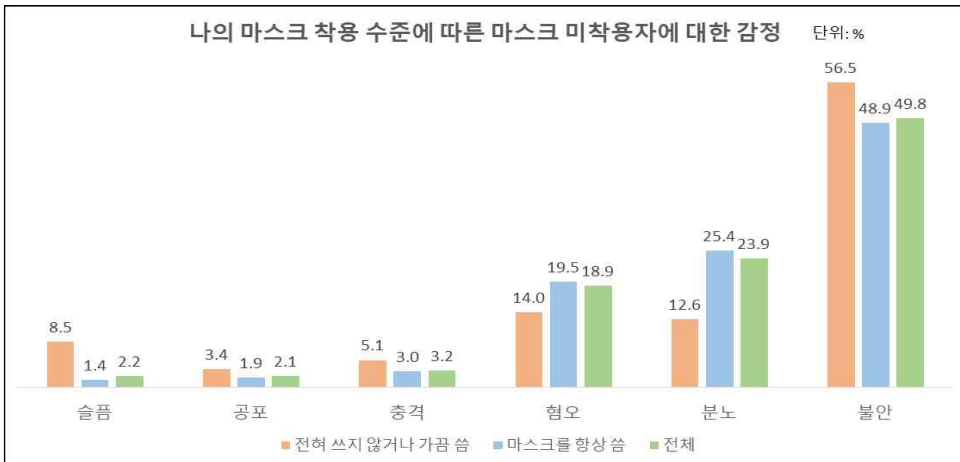
○ 지난 한 주 서로 마스크 쓰지 않고 대화했거나 만난 경우가 가장 빈번했던 장소로는 술·음식이 있는 밀폐/밀집 공간(클럽, 주점, 뷔페, 음식점 등)이 46.7%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16.1%가 다음 순위였다. 이미용 시설이 11.0%로 3순위였다.

○ ‘지금까지 마스크 쓰기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매우 그렇다+그렇다)은 69.1%로 나타났다. 마스크로 인한 스트레스 이유는 ‘마스크 쓰기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때문에’가 21.0%로 나타났다.



○ 주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질문하였을 때,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분노(23.9%), 혐오(18.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마스크 착용 수준에 따라 마스크 관련 감정을 다르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감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분노를 느끼거나(25.4%), 혐오를 느끼는(19.5%) 비율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 답변자보다 높았다.



○ 유 교수는 이에 대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자신들의 결사적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무책임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라며 “그런 무책임의 결과가 해당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단순 불안을 넘어 옳지 않다는 태도와 함께 분노와 혐오감을 강하게 촉발시킬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마스크 착용 자체가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나와 상대의 마스크 쓰기 여부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 주는 의미를 소통과 방역 주체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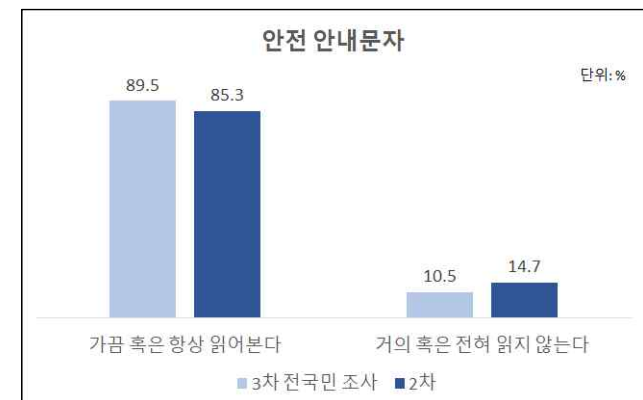
코로나19 소통

□ 정부의 소통 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3.63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정보제공 및 소통의 신속성이 3.90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정확성’(3.83점) 및 ‘투명성’(3.75점)이 다음을 차지했다. 위협소통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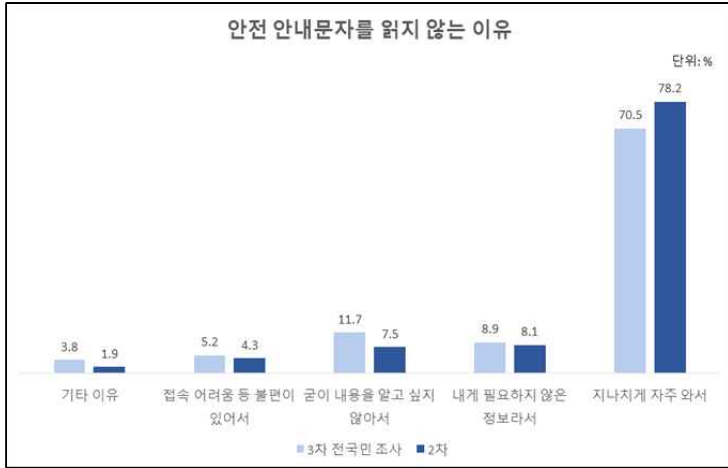
-그러나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기회 마련(3.25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3.54점), 내가 사는 지역의 취약성을 알려주는 것(3.55점) 등은 상대적인 만족도가 낮았다.



○ 코로나19 안전 안내 문자를 읽어보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읽어본다고 응답하였으나(85.3%), 14.7%의 응답자들은 거의 읽지 않거나 전혀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난 3월에 조사된 제3차 전 국민 조사결과(읽어봄 89.5%, 읽어보지 않음 10.5%)와 비교해보면, 안전 안내 문자를 읽어보지 않은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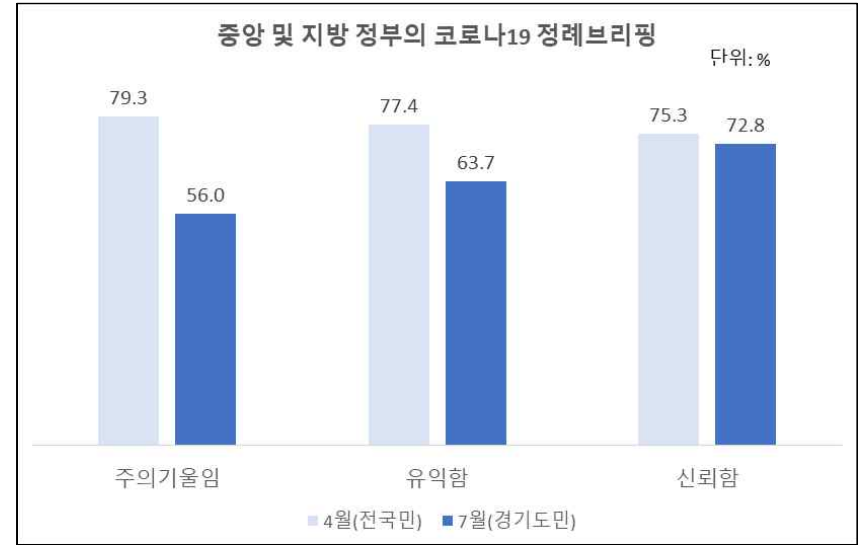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지나치게 자주 와서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7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서(8.1%), 굳이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아서(7.5%), 접속 어려움 등 불편이 있어서(4.3%), 기타(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3월 전 국민 조사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자주 와서' '굳이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아서' 읽지 않는다는 답변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대한 관심도, 유익한 정도, 신뢰도를 조사하였다(1점: 긍정적 평가(주의를 기울인다, 매우 유익하다, 매우 신뢰한다)~5점: 부정적 평가(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전혀 유익하지 않다, 전혀 신뢰하지 않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0%, '유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7%,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정례브리핑에 대한 관심도, 유익한 정도, 신뢰도는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높으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정례브리핑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지난 4월 전 국민 대상의 동일 문항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주의를 기울인다는 답변이 79.3%→56.0%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브리핑이 유익하다는 답변도 77.4%→63.7%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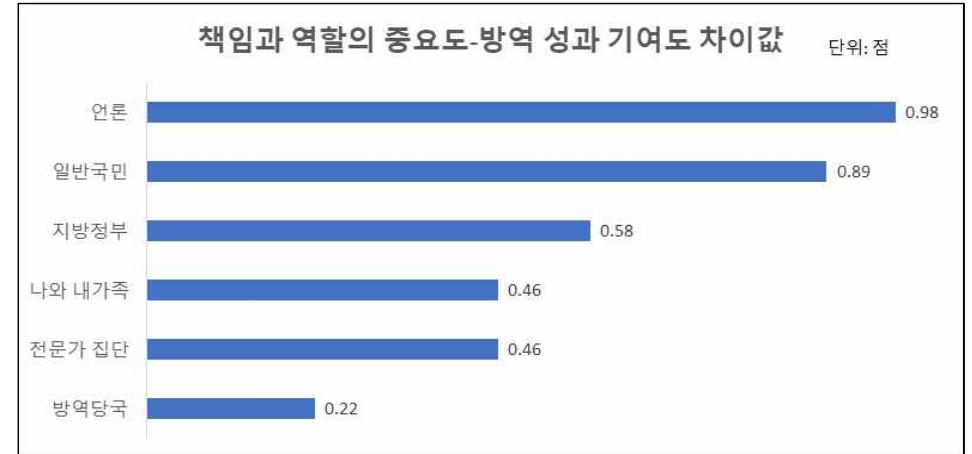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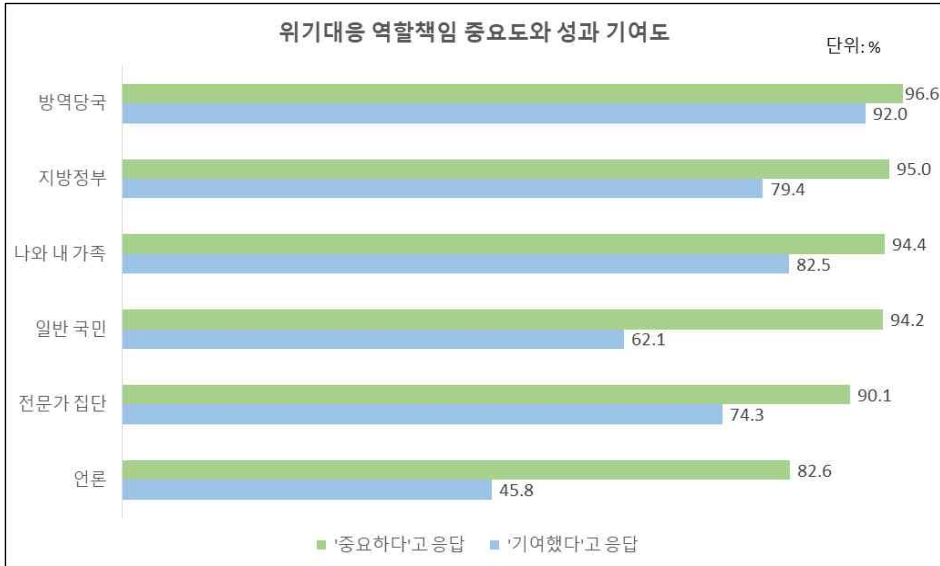


○ 이에 대해 유 교수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감염이나 방역 정보에 대한 정보 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은 시민의 높은 경각심과 지속되는 거리두기 실천에 성패가 달렸기에, 주목도와 유용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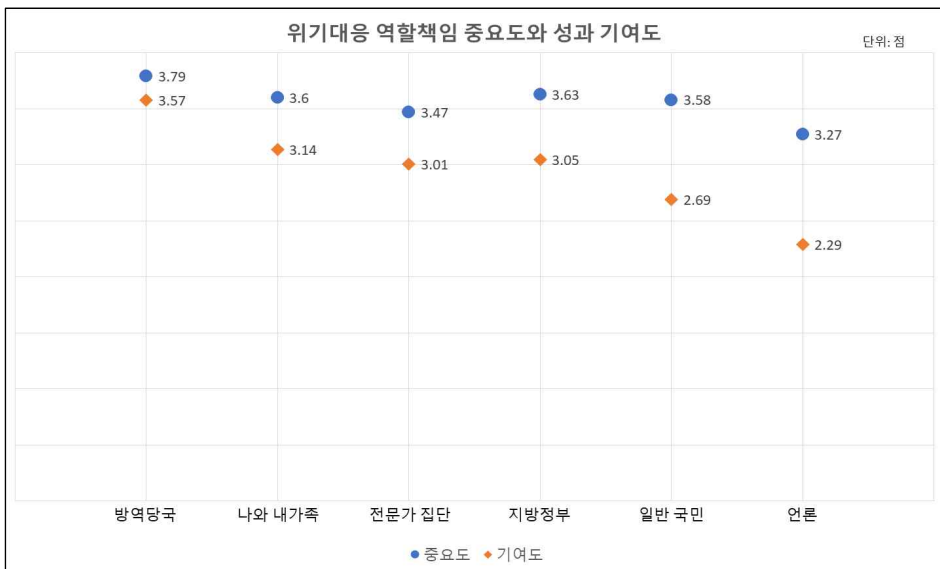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의 신뢰자본

○ 방역당국부터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위기대응 주체에 대한 신뢰를 이해하기 위해, 각 주체의 위기대응에서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및 '위기대응 성과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각각 “코로나19 위기대응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의 ”성과“에 각각이 얼마나 실제로 기여했다고 보십니까?”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0점)’~‘매우 중요(4점)’에서 고르도록 했다.

○ 책임과 역할 중요도 1순위는 방역당국(96.6%), 2순위 지방정부(95.0%), 3순위 나와 내 가족(94.4%)였다. 위기대응 성과에 기여한 정도는 1순위 방역당국이 92.0% 2순위 나와 내 가족 82.5% 순이다. 방역당국과 나와 내 가족은 위기대응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실제 기여도 큰 주체였다.



○ 유 교수는 이에 대해 “방역 당국과 나의 책임이 크고,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반면, 내 주변의 일반 국민의 기여를 언론 다음으로 낮게 본다는 것은 그동안의 코로나19 인식 조사에서 방역당국을 향한 높은 수직적 신뢰 대비 일반 신뢰가 낮았던 결과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아무리 방역 당국이 잘하고 내가 잘해도, 사태 장기화에서는 내 주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잘 해내리라는 믿음 없이는 믿고 일상을 지속하기 어렵고 성과도 내기 어렵다.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 위기대응에서 책임과 역할의 중요도에서 실제 기여도를 뺀 값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중요도 대비 기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격차 1순위는 언론 (0.98점)이고, 2순위 일반 국민(0.89)이다. 반대로 방역당국 (0.22점), 나와 내 가족 및 전문가 집단(0.46점으로 동일)은 역할 중요성 대비 기여의 차이가 가장 적다.